



人間的 無限한 可能性과 創造力은 敎養에 의해 發芽되고, 그것에 의해서 幅넓은 知識과 視野가 現實에 對應하는 힘에 되리라 確信하며 담방울에 얼룩진 이 한권의 책이 참된 防災研究에 마음의 伴侶者가 되어 출런지——

多事多難했던 79년이여 安寧.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 아침의 먼동이 됐다. 우리는 過去의 惡을 反省하고 未來의 善을 取하기 위해 心機一轉하여 올해는 더욱 알차고 보람된 한 해가 펼쳐지도록 노력을.——

지루하고도 긴 여름날이 繼續되듯이 오늘 이 한 권의 “火災 安全點檢”을 編내기 위해 흘린 努力과 試練과 未練과 반가움은 그 누구도 맛보지 않고서는 疑問(?)을 가질 것이다.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페이지 페이지 마다 誠과 熱을 쏟았다.

새 아침의 黎明을 바라보며 步武當當한 火協의 旗手들, 지는 해를 怨望하리오! 奔走했던 지난날이 走馬燈처럼 스쳐가는 影像앞에서 알알이 瑣瑣 結實을 거둘 수 있는 삶의 智慧를 심어 줄 珠玉 編으로 엮어 엮는지 그저 얼떨떨한 마음이다.

이번 號에는 지난 11월 9일 開催된 第2回 防火세미나에서 主題 發表된 서울大學校 金熙春教授(建築)와 漢陽大學校 宋石圭教授(化工) 두분의 글을 실어 技術分野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또 第1號~第12號까지에 收錄된 目次를 一目瞭然하게 掲載하여 앞으로 協會가 나아갈 里程標가 되어 躍進의 발판으로 삼도록 했다. <華>

火災 安全點檢 《年 2回刊》

(通卷 13)

登錄番號 바 520

登錄日 1973年 10月 11日

發行日 1980年 1月 1日

印刷日 1979年 12月 31日

非 賣 品

發行人 曹 興 萬

編輯人 金 雲 淑

印刷人 李 南 亨

發行所 社團 韓國火災保險協會
法人

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-614

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

郵便番號 150-□□

電話 (782) 8111~8125

(783) 2121~2135

本誌는 雜誌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要綱을 준수한다.